



14 "또 하늘 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14. "For it will be like a man going on a journey, who called his servants and entrusted to them his property.



15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15. To one he gave five talents, to another two, to another one, to each according to his ability. Then he went away



16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다.

16. He who had received the five talents went at once and traded with them, and he made five talents more.



17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두 달란트를 더 벌었다.

17. So also he who had the two talents made two talents more.



18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18. But he who had received the one talent went and dug in the ground and hid his master's money.



19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19. Now after a long time the master of those servants came and settled accounts with them.



20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더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서 다섯 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20. And he who had received the five talents came forward, bringing five talents more, saying, 'Master, you delivered to me five talents; here, I have made five talents more.'



21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

21. His master said to him,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You have been faithful over a little; I will set you over much. Enter into the joy of your master.'



22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 주인님께서 두 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두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22. And he also who had the two talents came forward, saying, 'Master, you delivered to me two talents; here, I have made two talents more.'



23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

23. His master said to him,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You have been faithful over a little; I will set you over much. Enter into the joy of your master.'



24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24. He also who had received the one talent came forward, saying, 'Master, I knew you to be a hard man, reaping where you did not sow, and gathering where you scattered no seed,



25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

25. so I was afraid, and I went and hid your talent in the ground. Here, you have what is yours.'



26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26. But his master answered him, 'You wicked and slothful servant! You knew that I reap where I have not sown and gather where I scattered no seed?



27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 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27. Then you ought to have invested my money with the bankers, and at my coming I should have received what was my own with interest.



28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열 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28. So take the talent from him and give it to him who has the ten talents.



29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29 For to everyone who has will more be given, and he will have an abundance. But from the one who has not, even what he has will be taken away.



30 이 쓸모 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

30 And cast the worthless servant into the outer darkness. In that place there will be weeping and gnashing of teeth.'

<u>설</u> 교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마 24:1 Mt. 24:1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서, 성전 건물을 그에게 가리켜 보였다.

Jesus left the temple and was going away, when his disciples came to point out to him the buildings of the temple.



마 24:2 Mt. 24:2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 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But he answered them, "You see all these, do you not? Truly, I say to you, there will not be left here one stone upon another that will not be thrown down."



마 24:3 Mt. 24:3

예수께서 올리브 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 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

As he sat on the Mount of Olives, the disciples came to him privately, saying, "Tell us, when will these things be, and what will be the sign of your coming and of the end of the age?"



마 24:33 Mt. 24:33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So also, when you see all these things, you know that he is near, at the very gates.



마 25:31-33 Mt. 25:31-33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When the Son of Man comes in his glory, and all the angels with him, then he will sit on his glorious throne. Before him will be gathered all the nations, and he will separate people one from another as a shepherd separates the sheep from the goats. And he will place the sheep on his right, but the goats on the left.



2. 주인의 관점

열 처녀 비유 (13절) 달란트 비유(17절)

종들의 이야기

10절

3절

주인의 이야기

3절

14절



2. 주인의 관점

마 25:1 Mt. 25:1

그런데, 하늘 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Then the kingdom of heaven will be like ten virgins who took their lamps and went to meet the bridegroom.



2. 주인의 관점

마 25:14 Mt. 25:14

또 하늘 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For it will be like a man going on a journey, who called his servants and entrusted to them his property.



마 25:14 Mt. 25:14

24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mark>굳은</mark>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24. He also who had received the one talent came forward, saying, 'Master, I knew you to be a hard man, reaping where you did not sow, and gathering where you scattered no seed,



마 25:14 Mt. 25:14

가혹한, 냉혹한, 난폭한, 경직된, 용서가 없는

삼상 25:3 …이름은 나발이며, …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하였다.

이사야 19:4 내가 이집트를 잔인한 군주의 손에 넘길 것이니,

폭군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주님, 곧 만군의

주님께서…

이사야 48:4 내가 알기에, 너는 완고하다.



마 25:14 Mt. 25:14

가혹한, 냉혹한, 난폭한, 경직된, 용서가 없는

삼상 25:3 …이름은 나발이며, …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하였다.

이사야 19:4 내가 이집트를 잔인한 군주의 손에 넘길 것이니,

폭군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주님, 곧 만군의

주님께서…

이사야 48:4 내가 알기에, 너는 완고하다.



마 25:15 Mt. 25:15

15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15. To one he gave five talents, to another two, to another one, to each according to his ability. Then he went away



마 25:21 Mt. 25:21

21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

21. His master said to him,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You have been faithful over a little; I will set you over much. Enter into the joy of your master.'



욘 4:2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for I knew that you are a gracious God and merciful, slow to anger and abounding in steadfast love, and relenting from disaster.



요1서 4:8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Anyone who does not love does not know God, because God is love.



4. 악하고 게으른 종

마 25:19

19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19. Now after a long time the master of those servants came and settled accounts with them.



4. 악하고 게으른 종

마 24:48-49

그러나 그가 나쁜 종이어서, 마음 속으로 생각하기를, '주인이 늦게 오시는구나' 하면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But if that wicked servant says to himself, 'My master is delayed,' and begins to beat his fellow servants and eats and drinks with drunkards



4. 악하고 게으른 종

마 24:48-49

무엇이 주인의 것인가?

달란트

종 (롬 14:8)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종의 시간 (마 24:36)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마 24:45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 때에 양식을 내주라고 맡겼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Who then is the faithful and wise servant, whom his master has set over his household, to give them their food at the proper time?



마 24:45 - 47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 때에 양식을 내주라고 맡겼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마 24:45 - 47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 때에 양식을 내주라고 맡겼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마 25:34

그 때에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마 25:21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마 24:51

그러나 그가 나쁜 종이어서, 마음 속으로 생각하기를, '주인이 늦게 오시는구나' 하면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생각하지도 않은 날에, 뜻밖의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 종을 처벌하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마 25:41

그 때에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마 24:45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 때에 양식을 내주라고 맡겼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마 25:35-36

너희는, 내가 주릴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마 25:14

또 하늘 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